"평화통일 기원하며 함께 달려요"

'국학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한 '2011 바른역사정립과 평화통일기원 전국 달리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8일 광주역 앞을 출발해 말바우 시장까지 3km 구간을 달리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2만여명, 광주에서는 150여명이 참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총장선거 '4강 구도'

전호종 총장 재출마 선언… 선거판도 큰 변화 예상

서재홍·강동완·박대환 등 8명 나서… 후보 간 연합도

조선대 전호종 총장이 8일 총장 선거에 출마키로 공식 선언해 오는 9월 22일 치러지는 제14대 조선대 총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출마 여부를 장기간 고심했던 전호종 총장은 지난 4년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학교 정상화 이후 지속적인 개혁과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재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총장은 이날 처장단 회의에서 "22년의 임시이사 체제 종식 등 정상화 기틀을 바탕으로 2013년 정이사 개편에 대비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동료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1988년 조선대 학원민주화 투쟁 이후 선출직 총장에서 재선 도전은 전 총장이 처음이다.

전호종 총장의 출마 선언에 따라 선거구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7명으로 예상된 후보군들은 현직을 유지할 경우 선거에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며 전호종 총장의 조기 등록과 총장직 사퇴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강력한 후보인 전 총장의 재선 도전에 따라 일부 후보 간 연합이 구체화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일단 지난 2007년 전호종 총장과 함께 선거를 치렀던 서재홍(62·의대 병리학), 강동완(57·치대 보철과), 박대환(56·외대 독일어과) 교수가 4강 구도를 이룰 전망된다.

여기에 새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김택현(59·공대 기계설계과), 조범준(58·전자공대 컴퓨터공학부), 임동윤(58·의대 약리학), 이계원(53·경상대 경영학부) 교수 등 4명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중 최고 연장자인 서재홍 후보는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고정 지지층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전호종 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아 근무 경험이 많은 교직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박대환 교수는 일부 후보가 옛 경영진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에 맞서 지금까지 옛 경영진 복귀에 결사반대해 온 자신이 대학 설립정신을 이어갈 적임자라며 대학 경영의 안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강동완 교수는 폭넓은 인맥으로 자신이 국책사업 등 학교재정을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한 후보자이며, 대학은 물론 지역 의료산업 및 치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G10 생명과학문화포럼 창립을 바탕으로 '아시아 중심의 브랜드 대학 경영'을 제시하고 있다.

조범준 교수는 2009년 정상화 과정에서 교수평의회 의장을 역임한 경력이 돋보이며, 김택현 교수는 공대학장으로 재임시 공학인증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동윤 교수는 성실성을 인정받아 각급 교직원들로부터 지지가 두텁고, 이계원 교수는 출마자 가운데 가장 젊을 뿐만 아니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꼽힌다.

오는 26일 등록마감과 함께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자격심사와 간접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3명을 압축하고 교직원, 총동창회 투표를 거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총장 임기는 11월 10일부터 4년간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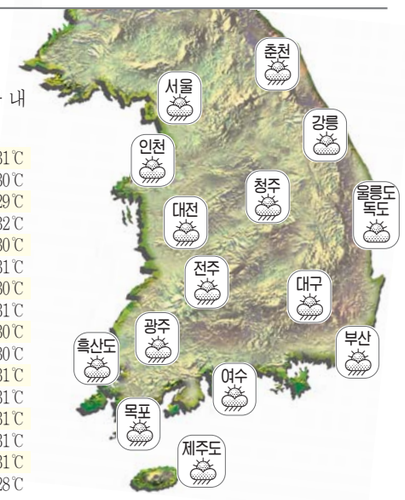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7분 해짐 19시 29분 달뜸 16시 01분 달짐 01시 05분

오늘도 '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광 주	구름많고한때비	25/31℃
목 포	구름많고한때비	25/30℃
여 수	구름많고한때비	25/29℃
나 주	구름많고한때비	25/32℃
완 도	구름많고한때비	25/30℃
구 례	구름많고한때비	24/31℃
강 진	구름많고한때비	26/30℃
해 남	구름많고한때비	26/31℃
장 흥	구름많고한때비	25/30℃
순 천	구름많고한때비	25/30℃
영 광	구름많고한때비	25/31℃
진 도	구름많고한때비	26/31℃
전 주	구름많고한때비	24/31℃
군 산	구름많고한때비	24/31℃
남 원	구름많고한때비	23/31℃
흑산도	구름많고한때비	23/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3.0m
먼바다	남~남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9:53 23:16	03:47 15:39
여수	05:05 18:41	11:23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수)	11(목)	12(금)	13(토)	14(일)	15(월)
날 씨						
최저/최고	26/31	25/31	24/32	24/31	24/32	24/32

노인타운 이용객 300만명 돌파

빛고을건강타운·효령복지타운, 2년2개월만에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은 8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남구 노대동)과 효령노인복지타운(북구 효령동)의 이용객이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10일과 2010년 4월1일 각각 개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이용객은 지난해 5월과 12월 각각 이용객 100만명과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개원(빛고을노인건강타운 기준) 2년2개월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역 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은 현재 교양교육, 취미·여가, 정보화 교육, 건강체육상담 분야의 121종 234개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개원 이후 60여개가 증설될 정도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치열한 수강 경쟁을 벌이는 댄스 프로그램 종류만 해도 4개(부부댄스, 라인댄스, 사교댄스, 댄스스포츠 등) 이상이 개설돼 폭넓은 수강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고 '태권무', '아버지요리교실', '수중리듬걷기', '파크 골프' 등 참신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협약 체결 병원(18개)과 연계를 통한 무료 진료 및 검진, 한방진료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사선발 위탁 사립학교 단 2곳

광주 71개교 중… 시교육청 '투명 채용' 정책 사실상 실패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에 단 2곳 법인(2개교)이 신청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사립학교 교사 위탁 채용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세종고와 특수학교인 세광고 등 2곳에서 6명의 교사 채용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1~2곳 법인에서 교사 4~5명의 위탁 계획을 밝혔다"며 "조만간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71곳(36개 법인)으로 교사 수가 3500명에 달한데다, 매년 200여명의 교사를 채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청의 위탁 요구를 거부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시 교육청은 최근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인사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경영평가 가산점 부여, 현안사업 우선선정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주겠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인사정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은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는 인식에다 교육당국과 사학간의 뿌리깊은 불신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모든 사학이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를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사학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 같아 서럽고 억울하다"며 "사학들이 이심전심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 법인이 적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자체선발을 하더라도 투명한 절차와 방법 등을 지키면 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상(53조) 교사임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며 시행령(21조)에는 교육감에게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 3~4년간 위탁 법인은 임시이사 체제 등 2~3개 학교에 불과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일부터 추석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

광주시는 8일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122곳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광주시 및 자치구 직원 등 모두 21명이 참여하며, 대상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인삼제품·한과류·다류·벌꿀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 가공업체 49곳과 백화점·대형 마트·재래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73곳 등 모두 122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완제품의 기준·규격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및 판매,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이다. 또 이번 점검에서 삼겹살, 돼지갈비 등 대중음식료와 목욕료 및 이·미용료 등 부당인상 행위에 대한 지도도 병행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법원 "가수 비 출연료 3억6000만원 줘라"

가수 비(정지훈)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옛 제이튠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도망자 PLAN.B'의 제작사를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비가 출연한 도망자 PLAN.B를 만든 D제작사를 상대로 JYP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계약 내용 및 이후 상황을 보면 D사가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제작사는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방영된 도망자 PLAN.B와 관련해 "D사가 비의 출연료 잔금과 드라마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돈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전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씨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클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기존청구요금(사용전력량: kWh)일때	설치시 청구요금	절 감 요 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062-512-1180/ H.P 011-659-7001